

평 화 선 언

78 년 전 원폭이 투하된 날을 마치 생지옥과도 같았다며 회상하는 당시 8 살의 피폭자는 ‘핵무기 보유국의 지도자들은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방문해 자신의 눈과 귀로 직접 피폭의 실상에 대해 알고자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날 방사선 열기에 불타 순식간에 잃어버린 목숨, 제대로 간호도 받지 못한 채 화상과 방사능증으로 고통 받으며 죽어간 목숨. 이렇게 꺼져간 수 많은 이들의 생명의 무게를 이곳에서 느껴 보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올해 5 월에 개최된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평화기념자료관을 시찰하고 피폭자들과 대담하면서 기록된 방명록은 이러한 피폭자들의 바람이 각국 정상들의 가슴에 전해졌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령비를 참배한 각국 정상들에게 제가 직접 전해 드린 비문에 담긴 마음, 즉 과거의 슬픔을 견디고 증오를 넘어서서 전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바라며 진심으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히로시마의 마음’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G7 에서 처음으로 ‘핵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이 독립된 문서로 정리되면서 모든 사람의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이 궁극적인 목표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각국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이를 방위 목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전제로 안전 보장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방침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핵 위협을 하는 정치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전 세계 지도자들은 핵 억제론이 과탄에 이르렀음을 직시하고 우리를 가혹한 현실에서 이상으로 이끌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조속히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피폭자의 ‘이러한 슬픔을 그 누구도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에 담긴 인류애와 관용의 정신을 공유하는 한편, 개인의 존엄과 안전이 위협 받지 않는 평화로운 세계를 실현하고자 정치가들이 핵 억제론에서 탈피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 조국 인도의 독립 운동에서 비폭력을 관철한 간디는 ‘비폭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무기이며, 인간이 발명한 최강의 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유엔 총회에서는 평화에 초점을 맞춘 유엔 문서로 ‘평화 문화에 관한 행동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한시라도 빨리 종결시키려면 전 세계 정치가들이 이러한 말과 행동계획을 고려해 행동하고 우리 또한 그에 부응하여 일어서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와 국적, 신념과 성별을 초월해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음악이나 미술, 스포츠 등을 접하거나 참가함으로써 ‘꿈과 희망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회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전 세계에 ‘평화 문화’를 뿌리내리는 활동을 펼쳐 나갑시다. 그렇게 한다면 시민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치가들이 반드시 시민과 함께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행동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히로시마시는 세계 166 개 국가 및 지역의 8,200 곳이 넘는 평화수장회의 가맹 도시들과 함께 시민 차원의 교류를 통해 ‘평화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우리의 뜻이 정치가들의 마음을 울려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국제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피폭자의 평화에 대한 마음을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알리고, 국경을 넘어 전파하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피폭의 실상에 관한 히로시마시의 활동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각국의 정치가들은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의 뒤를 이어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평화에 대한 마음을 전파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핵을 통한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신뢰 관계에 기초하여 안전보장체제 구축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피폭자를 비롯해 평화를 기원하는 국민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사이에 발생한 분단을 해소하는 중개자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핵무기금지조약 체결국이 되어 핵무기 근절 논의의 공통 기반을 형성하는 데 힘을 쏟기 위해 우선은 올해 11 월에 개최되는 제 2 회 체결국 회의에 옵서버로서 참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평균 연령 85 세를 넘어 심신에 악영향을 끼치는 방사선으로 인해 생활 면에서 다양한 고통을 안고 계신 많은 피폭자들의 고뇌에 관심을 기울이고 피폭자 지원책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피폭 78 주년 평화기념식전에서 원폭 희생자들의 넋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핵무기 근절과 더불어 영구적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 피폭지 나가사키,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3 년 8 월 6 일

히로시마 시장
마쓰이 가즈미
번역: Ability InterBusiness Solutions, Inc.